

98.5.14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좌 (매월 둘째, 넷째 목요일)

「신학의 사조」 9: 정치신학(제1세계의 해방신학)

<12 강좌> 계획 -- 어거스틴에서 포스트-모던까지

-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. 어거스틴 | 2. 토미즘 | 3. 종교개혁 |
| 4. 경건주의 | 5. 자유주의 | 6. 근본주의 |
| 7. 신정통주의 | 8. 실존주의(볼트만) | 9. 정치신학(볼트만) |
| 10. 해방신학 | 11. 환경/생명신학 | 12. 포스트-모던 신학 |

I. 지난 시간 요지 및 보강

1. 루돌프 볼트만(Rudolf Bultmann, 1884-1976, 93살, 바르트보다 먼저, 나중)

1)

1926, 『예수』 -- “결단”을 촉구하는 설교자

1941, “신약성서와 신화론” 발표

2) 주요 사상/개념

<실존> existence <실존적> existential

예: 실존적 이해 = 나의 결단, 선택의 결과

<실존론적> existentialist

예: 실존론적 이해 = 다양한 가능성들과 그 한계성들을 연구한 결과

<실존적 이해>와 <대상적 이해>는 다르다. 후자는 과학적 이해. 초월적 위치에서만 가능. 그러나 전자는 “참여”/“만남”을 통하여서만 이해 가능.

<질문자>는 “질문한 만큼만” 이해한다. <前이해> -- 질문의 중요성 !!!

<인간 실존> 그 존재양식은

본래적 존재(양식)과 비본래적 존재으로 구별된다.

<Being-in-the-World> &/Yet “Standing before the Future,”

*/ “주체성”이 진리이다! -- facticity, possibility, fallenness

*/ Human under the power of Sin -- 루터란적 인식

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“본래적 존재” 탄생

<역사> -- historie, geschichte, eschatology, historicity

*/ 신약성서는 종말론의 문제를 풀지못하였다!? -- 재림지연--> “종교화”

그러나, 그리스도=역사의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 시도

역사성 -- 실존, 자기-이해

<“역사적 예수” 탐구> 불가능 + 불필요

Martin Kähler, 『소위 역사적 예수와 (실존)사적, 성서적 그리스도』(1896)

슈바이처, 『역사적 예수 탐구』(1906), “옛 탐구”의 종언 수용.

<이유> 불가능+불필요, 부당한 노력

<탈신화화(Demythologizing) = 실존론적 해석>

목표: 현대인들이 알아듣도록 성서 메시지 선포하자(목회자들에게 발표한 논문)

<신약성서의 신화>, 그 성격

<“speaking “of”(참여자) / “about”(초월자) God>의 구별 중요하다

십자가+부활=일상 속의 일

둘은 하나(롬10:9), 하느님과 우리의 참 실존으로 부르는 음성, “구원을 이루는 사건,”

“신의 은총”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

<죄=불신앙>

<신앙은 삶/존재 구조(삶의 방식, 실존 이해의 방식)>

<성분>

<신앙=새로운 자기-이해>

<결단 행위>

<신앙=자유> from 자아, 세상, 율법, 죽음; for 하느님, 사랑

<신앙=종말론적 사건> 날마다 과거 죽음과 미래의 도래, (하느님의 은총으로)

남은 과제:

historie의 중요성, 예수 없이 그리스도? 그리스도의 신성?

II. 독일의 1970년대(60년대 태동), 정치신학(80년대 이후, “평화신학”쪽으로 이동)

1. 주역 인물:

Jürgen Moltmann, Dorothee Sölle, Jan(?) Lochman, Johannes Metz, Helmut Gollwitzer

등

2. 개념/용어 정의

1) 고전적 정치신학 -- 로마, 스토익의 정치신학(제외-> 국가, 신화->극장, 형이상학-> 철학)

2) 근대 독일의 정치신학, Carl Schmitt 1922, 34 = 무너진 정치적 유토피아 구원 꿈

비교: Karl Barth의 “위기 신학”

// “시민 종교”, 1967, Robert Bellah -- “Like attracts like.” commonality 대표

3) “새로운” 정치신학 -- 교회의 정치화 거부, 그러나 정치의식 고양, 정치력 행사

3. 전제/기본 개념

1) 출발점

이념적: 종교의 정치화 + 정치의 종교화 +(정치적 무관심)

사회적: “After Auschwitz,” “After Hiroshima,” 신학은 가능한가?

Metz, Moltmann, “Yes!” “In Auschwitz”에도 “신학”은 있었다.

1960년대의 등장하다.

분석:

유대인들에게 -- “고통의 의미,” “하느님의 침묵”

독일인들에게 -- “침묵의 의미,” 수치, 죄책, 슬픔

. 독일의 “정치신학”은 합회하는 자의 신학???

“이 사건은 독일인들의 사고 방식의 전환점이었다.”

2) 새로운 인식

(1) “정치적으로 순진한” 종교/신학은 없다.

신마르크스주의의 공헌 = 인식은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다.

3) 핵심 사상

(1) 「종교 = 사사로운 문제/영역」(X)(“탈사사화”/depravitization of faith)

계몽주의, 브루조아지, 19세기 자유주의 신학, 근대 국가 정책

(2) 종교/정치, 교회/국가 분리, “루터의 2왕국론” (영미, “청교도” 전통)
한족-- “순수성 콤플렉스”(백의민족?)

(3) 탈이데올로기화 -- “침묵은 status quo(기득권)에 동조/협력함”

(4) 교회=“사회비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기관”(메츠)

“세상”(자리)을 재발견하는 “예언자적 공동체”

“희망의 공동체”

“평화/정의를 이루는 공동체”

(5)신학적 전개

<1> 십자가에 달린 신(예수, 로마의 평화의 의한 정치적 처형)

<2> 삼위일체의 신(공동체의 신<-->단일군주론/지배자 신에 대한 수정)

<3> 피억압자의 신(병든자, 가난한자, 고아와 과부)

이민신학=주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, 주변인들의 공동체?

<4> 세계 일치성의 신(the God of ecumenism)

friend/foe schema 넘어선다.

“정치적 충성심”은 국가/민족 이익 안에 머문다.

<5> “희망의 신”

특정 정치 질서/국가/국민=하느님 나라/백성, 치명적 신학적 오류

유대인, 이교도, 무신론자들에 대한 잔인한 박해

“그리스도의 천년 왕국” “Pure Hope, not a possible political praxis”

“pure messianic future,”

Yet, “the Lordship of Christ is present.”

(6)윤리적 전개 -- “평화의 신학”

<평화>

소극적 평화 -- 전쟁, 폭력, 공포의 부재

예: 냉전 시대의 평화, 군사정권 치하의 평화

적극적 평화 -- 정의가 있는 평화

현존 세대만이 아니라, 간 세대와 올 세대에게도 정의로운 사회

(핵/생태계 문제)

<원수 사랑> -- 복수를 구하지 않음 +

자신의 주권(존엄성?) 행사 =적을 두려워함, 적의에 승복 <아니다>

<적의 공격에 어떻게 나를 지킬까?> 묻지 않는다.

<어떻게 적의 적의를 죽/줄일까?>를 묻는다.

<원수 사랑의 정치학>

① 독재, 억압적 세력 극복을 위한 비폭력의 정치(힘의 의로운 행사)

② 모든 힘을 법률로 규제하도록 만든다(군력 투쟁).

③ 법을 지키지 않을 때 “저항”한다(권력 투쟁).

④ 독재적 힘에 대한 저항력은 공포가 아니라 힘없는 자의 “연대.”

⑤ 순교를 요하기는 하지만, “비폭력적으로 폭력을 극복하는 일은 가

능하다.”(『평화 축제』 116쪽)

Adorno, “After Auschwitz there are no more poems.”(Moltmann, cited)